현대불교신문

AI 그림 공모전

21세기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207명 응모…대상 등 16작품 선정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이 주최한 '2025 현대불교신문 AI그림 공모전'이 열띤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불교계에서 최초로 열린 AI 창작 공모전으로, 불교적 사유와 첨단 기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공모 주제는 '21세기에 부처님이 계신다면?'이었다. 부처님이 오늘날 우리 곁에 계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실지를 AI라는 새로운 창작 도구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했다. 공모 기간은 8월 4일부터 29일까지였으며, 총 207명이 응모해 불교와 디지털 예술의 융합 가능성을 보여줬다.

심사 결과, 대상은 김하림 씨의 '戰火에 피어난 연화 - 無言의 관세음이 전하는 자비'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에는 송찬호 씨의 '디지털 윤회(輪廻) 속, 영원(永遠)을 응시하는 시선'과 김다현 씨의 '멈춤의 공空간'이 선정됐다. 이어 우수상 3명, 장려상 10명 등 총 1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김하림, '戰火에 피어난 연화 – 無言의 관세음이 전하는 자비'

심사 총평

"불교문화 새 가능성 보여 줘"

심사는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맡았다.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박훈 현대불교 미디어 자문위원, 유주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양경수 웹툰 작가, 주현우 해탈컴퍼니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 기준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AI 활용도 △예술성 및 완성도 △대중성이었으며, 작품에 담긴 불교적 메시지와 현대적 감각을 고르게 살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공모전으로 불교가 AI라는 도구를 활용해 시대와 호흡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며 "이러한 시도가 이어져 불교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래 총장은 "AI를 활용해 불교 콘텐츠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공모전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AI가 새로운 차원의 불교를 펼쳐가는 협업의 동료로 인식되고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박훈 자문위원은 "작품의 불교적 가치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중점적으로 봤다"며 "창작과 표현의 장을 통해 불교의 가치를 새롭게 형상화하고 나누는 과정이야말로 불교가 현대 사회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주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물은 적어 아쉬움이 있었지만, 주제와 잘 부합하고 높은 작품성을 보여 준 작품들이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양경수 작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의 불교·부처님·불국토를 얼마나 잘 표현했는가에 심사의 중점을 뒀다"며 "세련되고 힙(Hip)한 작품이 많아 불교문화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현우 해탈컴퍼니 대표는 "창의적이고 의미 깊은 작품들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치유와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우수상



송찬호, '디지털 윤회(輪廻) 속, 영원(永遠)을 응시하는 시선'



김다현, '멈춤의 공空간'

우수상



송기현, '21세기의 부처님, 여행 유튜버'



전수빈, '폐허 속의 자비'



박영규, 'UN 평화대사 부처님'